국내 동물질병 발생동향 및 특성 고찰

-최근 4년간 전국 병성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기 고 순 서〉

■들어가는 말
- ●동물질병 병성감정 개요 및 최근 4년간 실적

■본 론
- ●주요 축종별 질병발생 동향
  - Ⅰ. 소 질병
  - Ⅱ. 돼지 질병
  - Ⅲ. 조류(가금 및 야생조류)질병
  - **Ⅳ. 반려동물 및 기타동물**

■맺 는 말
- ●시사점과 병성감정 효율화를 위한 제언

이 명 헌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
수의학박사
vetlee@korea.kr

회 차	집필자	게재예정호 (원고송부일자)	투고내용
1	이명헌	10월호 (9월 20일)	〈들어가는 말〉 병성감정 개요 및 최근 4년간 결과분석
2	이명헌	11월호 (10월 20일)	〈본 론〉 주요 축종별 질병 발생동향 1. 소 질병
3	이명헌	12월호 (11월 20일)	주요 축종별 질병 발생동향 2. 돼지 질병
4	배유찬	15년 1월호 (12월 20일)	주요 축종별 질병 발생동향 3. 조류(가금 및 야생조류)
5	**이명헌**	**15년 2월호 (15년 1월 20일)**	**주요 축종별 질병 발생동향 4. 반려동물 및 기타동물**
6	이명헌	15년 3월호 (15년 2월 20일)	〈맺는 말〉 시사점과 병성감정 효율화를 위한 제언

본 론 : 주요 축종별 질병발생 동향

Ⅳ. 반려동물 및 기타동물

동물보호법 개정이후 동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병성감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 병성감정기관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업무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의 병성감정 실적을 살펴보면 개는 '11년 1,79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한편 고양이는 '12년 1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3년에는 81건에 그쳤다(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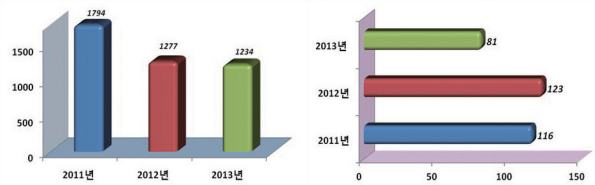

그림 14. 최근 3년간 반려동물 병성감정실적 (개-좌측, 고양이-우측)

▶기타축종은 벌, 말, 사슴, 염소 순으로 병성감정 의뢰건수 많아

반려동물 이외 소수 축종으로는 벌이 가장 많았고 말, 사슴, 염소 순으로 병성감정 의뢰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09년 강원도 홍천에서 최초로 보고되어 국내 토종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낭충봉아부패병의 발생으로 '11년 벌의 병성감정 실적이 716건에 이르렀다. 또한 근래들어 승마인구가 늘어나고 말 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말 질병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그 외에 염소, 사슴, 산양, 토끼에 대한 병성감정도 소수이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그림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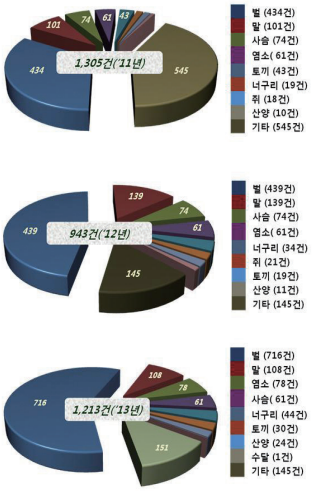

그림 15. 최근 3년간 기타축종의 병성감정 실적

▶개, 고양이 종양 의뢰건수 많고, 원인체별로는 세균이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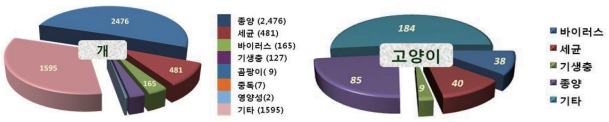

그림 16. 최근 반려동물의 질병 원인체별 분포 현황 ('11~'14.6)

반려동물의 병성감정은 일선 동물병원에서 의뢰되는 건수가 많았고 특히 개의 경우에는 종양의 조직검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의뢰된 종양의 약 66%는 유선종양으로 유선복합선종, 유선선종, 유선양성혼합종, 유선선암종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염성 병인체로는 개와 고양이 공히 세균성 질병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바이러스, 기생충 순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6 참조). 최근에는 굶주린 유기견이 독극물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폐사하는 등 중독사례도 확인된 바 있다.

▶개는 7~8월, 고양이는 동절기에 질병발생율 높아

최근 3년간 반려동물의 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개의 경우에는 7~8월을 제외하면 연중 유사한 발생율을 보였던 반면, 고양이는 동절기에 질병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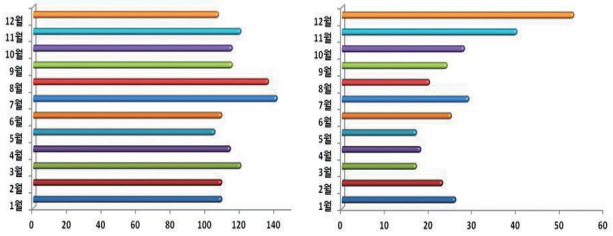

그림 17. 월별 반려동물 질병발생 분포(개-우측, 고양이-좌측)

▶개 포도상구균증 급증,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발생 많아

개의 화농성피부염으로 대표되는 포도상구균증은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가장 빈발하는 질병으로 자리잡고 있다(표 6 참조). 또한 파보바이러스증이나 디스템퍼 등 고전적인 애견질병들도 발생건수가 좀처럼 줄지않아 애견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밖에도 심장사상충, 바베시아, 개 회충증 등 기생충성 질병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어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정기적인 구충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최근 가장 빈발하는 개 질병 ('11~'14. 6)

질병명	발생건수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Staphylococcosis	32	49	67	32	180
Canine parvovirus	24	23	11	7	65
Heart worm	10	22	15	5	52
Canine distemper	8	8	5	3	24
Babesia	1	7	7	7	22
Canine coronavirus	6	4	4	2	16
Ascariasis	3	4	6	1	14
Brucellosis	5	5	3	0	13
E.coli pneumonia	6	1	2	0	9
Colibacillosis	6	1	1	0	8

고양이는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범백혈구감소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염성복막염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대장균, 포도상구균, 파스튜렐라 등 상부호흡기계 세균감염증과 폐렴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백혈병, 칼리시바이러스증은 각각 1건씩 보고 되었다. 한편 '13년 경기도 화성에서는 야생너구리에 교상을 입은 새끼 고양이가 광견병으로 최종 확진되기도 하였다(그림 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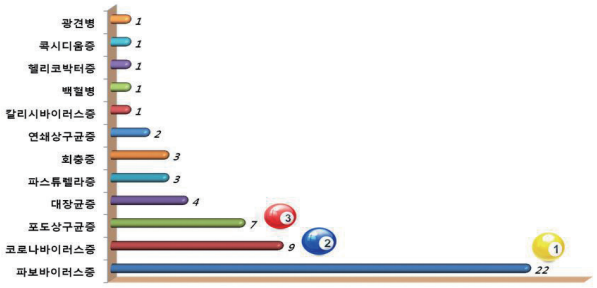

그림 18. 최근 가장 빈발하는 고양이 질병 ('11~'14. 6)

▶한수이남에서 광견병 첫 발생, 개 브루셀라 관리 필요

제 2종 가축전염병인 광견병은 1993년 철원에서 8년만에 재발한 이래휴전선 인근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간헐적인 발생을 보이다가 지난 '12년 4월 한수이남인 경기도 수원 및 화성까지 남하하여 한동안방역당국을 긴장시킨바 있다(그림 19 참조). 한편 개 브루셀라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천만을 상회하는 애견인구를 고려할 때 공중보건학적 관리대책 수립이 절실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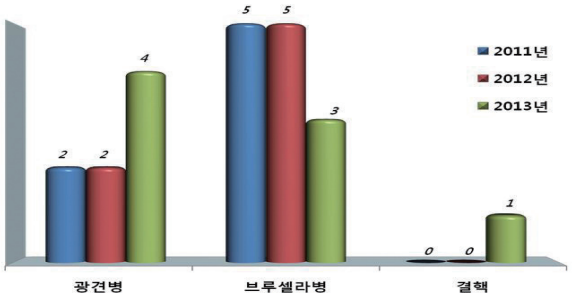

그림 19. 최근 3년간 개의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사슴 결핵 근절대책 시급, 너구리는 광견병 전파숙주

소, 돼지 등 주요 산업동물 이외의 기타축종에 대한 병성감정 의뢰건수가 많아지면서 법정전염병 확진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표 7 참조). 최근 3년간 5종 137건의 법정전염병이 검색되었는데 이중 123건이 사슴결핵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12년 한수이남에서 최초로 발생한 광견병의 경우 야생 너구리가 전파숙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염소와 산양에서 요네병, 전염성 비기관염 등이 보고되었다.

표 7. 최근 3년간 기타축종의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질병명	발생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구제역	1건(염소)	–	–
결핵	29건(사슴)	47건 (사슴45, 염소2)	50건 (사슴49, 수달1)
요네병	–	1건(염소)	3건(염소2, 사슴1)
전염성비기관염	2건(염소1, 산양1)	–	–
광견병	–	4건(너구리)	–
소계	32건	52건	53건

〈다음호에 계속〉